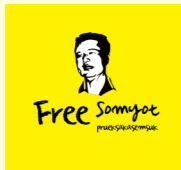


Somyot Prueksakasemsuk



태국의 양심수 솜웃 씨, 전태일 노동상을 수상하다

글 김남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관리실
자료 및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태국의 양심수 솜웃 씨(Prueksakasemsuk)씨가 해외 노동운동가로서는 처음으로 제24회 전태일 노동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1988년 처음 제정된 전태일 노동상은 그동안 국내 노동조합 활동가나 단체에 수여되어 왔으나, 2016년 보건의료노조와 화학섬유연맹이 솜웃 씨를 후보로 추천했고 재단이 이 의견을 수용해 처음으로 특별상을 추가 제정했다.

* 2007년 한국의 보건의료노조를 방문한 솜웃 씨와 동료들

솜웃 씨는 태국에서 30여 년간 노동운동가와 언론인으로 활동해 오던 중 2011년 4월 30일 군사 쿠데타 정권에 의해 체포되었다. 왕실 모독죄를 이유로 2013년 11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6년 가까이 수감 중이다.

솜웃 씨는 1980년대부터 노동정보서비스훈련센터(CLIST)를 창립해 화학, 의류,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교육하며 민주노조를 키우고 연대를 강화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화학노동자연맹(CWUA), 민주노조연맹(ADTU) 등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해 의장을 맡았고,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민주화 세력인 '레드셔츠' 정치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 한국의 노동·시민단체가 솜웃 씨의 석방 촉구 운동을 벌이는 모습

그는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90년대부터 한국의 노동조합과 꾸준한 교류를 이어왔는데, 민주노총이 한국 정부의 탄압을 받을 때마다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연대에도 앞장섰다.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연대의 노래'라는 제목의 태국 노래로 번안하기도 했다.

전태일재단은 "솜웃 동지가 태국의 변두리 지역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한 점, 노동운동에서 민주화 운동까지 태국 민주화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한 점, 각국 노동단체와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연대정신을 드높인 점은 전태일 정신을 구현한 것이다. 이에 전태일 노동상 선정위원회는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솜웃 동지의 석방을 촉구하고자 전태일 노동상 특별상을 수여한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은 2016년 11월 13일 오전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전태일 열사 46주기 추도식'에 이어 진행됐다. 올해의 전태일 노동상은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서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철도노조가 수상했으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솜웃 씨와 함께 특별상을 받았다.

방콕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솜웃 씨를 대신해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에 참석한 솜웃 씨의 딸 뿌라까이다오 뿌룩사까셈숙(Prakaidao-Prueksakasemsuk) 씨는 "아버지가 서 있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럽다. 한국에 오기 전 아버지를 면회했는데 아버지는 자신은 전태일처럼 위대한 사람은 될 수 없겠지만 그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하셨다."는 말을 전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5년 넘게 옥중에 갇혀 있는 아버지에게 연대의 편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민노총**



* 솜웃 씨를 대신해 전태일 노동상을 대리수상한 딸 뿌라까이다오 씨가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